

**[매일경제] 제 18 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체육대회 열려(종합) (2013.5.10)**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외국인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제 18 회

다문화어울림한마당 행사가 12 일 서울 광장초등학교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1996 년부터 나섬공동체(대표 유해근 목사)가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올해로 18 회째이다.

이번 행사에는 몽골과 인도, 이란,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6 개국 이주민들과 내국인 등 500 여명이 참가한다.

오전 10 시 식전행사로 진행되는 축구와 농구경기에 이어 오후 1 시부터 줄다리기, 2 인 3 각 달리기, 풍선 터트리기 등 다양한 게임과 국가별 전통문화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6 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부스도 설치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또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가 다문화가정 구성원들과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자장면 500 그릇을 제공하는 '보은의 자장면'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1997 년 발족된 서울차이나타운개발추진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차이나타운 건설과 국내 화교를 포함한 장기거주 외국인을 위한 영주권 제도 도입을 앞장서 추진했으며, 2007 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 '보은의 자장면' 행사를 열었다.

나섬공동체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이주민과 한국인들의 문화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외국 이주민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행사는 서울특별시와 롯데복지재단, 서울차이나타운 개발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원본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364388>